

발행인 김 통 선
편집장 김 형 필
편집장 윤 석 진
발행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신문사
전화 7128 (직통)
131 서울동대문구이문동270-1
인쇄인 조선일보사 방 우 영

외대학보

(1958. 3. 27. 제 3종우편물인가)
(등록번호 제 다 253호)

제 3 6 5 호

<주관>

1983년 4월 14일
매주 목요일 발행
(1년 구독료 5천원)
창간 1960년 7월 1일
창간 1955년 4월 11일

개교및본보 창간기념 16면발행

- 2번 : 시·사자·총장, 기념사, 외국어교육 100주년 기념사
- 3번 : 기둥처럼, 동문발상, 이렇게본다, 독자칼럼
- 4번 : 5번 : 자연과학과 인간
- 6번 : 문화강국과 건설문화론, 반식민지, 미갈의인물
- 7번 : 캠퍼스에서의 반식민지의 풍토, 연구소시대, 인터넷
- 8번 : 세계의 남방문화, 외대문자사 9번 : 보도기사
- 10번 : 11번 : 시·시조으로본 외대시문물자료
- 12번 : 13번 : 한국사회 오늘날을 진단한다.
- 14번 : 4 : 1971년논문 (한국학사통고외역제)
- 15번 : 외대론에 이렇게 접근한다, 외대학파에 바란다
- 16번 : 토대메시에 우리 세대의 무엇을 물어야 할 것인가?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천년대를 향해 웅비의 날개를 펴라!



그 깃발 없는 깃발 아래
하나로 모여라 마음마음
하나로 흠어져라 세계
진리와 평화와 창조
아픈 꽃을
눈부시게 꽃 피어나게 하라
눈부

우리들이 가는 길 어디에나
찬란하게 아침해는 떠오르게 하라
한국의국어대학교

오대양 육대주
바닷길을 열이라
하늘길을 열이라

불꽃꽃을...
의대인들이여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라
환한 웃음웃음
모아 모아
꿈을

활짝 웃음의 하늘을 열었다
아무리 우리들 삶이 어둡다
너와 나의 가슴에 자라는

세제 어느 곳 누구네 말을 모르랴
꿈꾸는 법을 배우며 말을 익히며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종로에서 비롯된 한업이 이문동 기슭을
풍요로 뒤흔드나니

언제나 초록아침에 보랏빛 뿌리며 해가
떠오르듯이
보아라 너와 나의 가슴 속을
헐떡여온

—개교 및 외대학보 창간일을 기념하여—
문
총
성

[illegible]

창간 28주년을 맞이하여

꺼지지 않는 햇불되어

자유와 진리의 고성(孤聲)을 높이하며 미네르바에 터잡아 바른 뜻 퍼기 어언 스물여덟 해 화창한 4월에 뜻깊은 창간을 기념하게 되었다. 오늘 창간28주년의 벽차오르는 감격을 다시 맛보면서 각고와 보람, 질책과 회한의 지나간 설산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본보는 『자유와 민주주의 사상』에 지적한 학설 각 개인에의 개성창달과 지도적 「인격」을 도야한다는 본보의 교육이념을 널리 알리고, 진보하는 외대문화를 창달하기에 전력을 다해왔다. 현실상부한 세계속의 외대를 꿈꾸며 외대의 지평선을 세계로 확대시키려 했고, 광대무변한 인식(認識)의 바다속에서 「진(眞)」이라는 진주알을 하나 둘 캐내는데 조 명들의 역할을 다해왔다.

건전한 의태화풍을 정립하기 위해 폭풍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오늘날 결코 만족스럽게 생각하거나 자만하지는 않는다. 쓰여진 그대로의 의태의 정서(正史)이요 그랬으나 야사(野史)마저 꾸미지 못한적이 있지 않았나 자성도 해본다. 시시각각 밀려오는 「한계상황」은 결국과 파멸으로 나타나기 do했다. 이럴때마다 본보는 진실보도의 중차대한 사명감을 새로 일깨우며 본보가 해야 할 일을 결코 잊지않는다.

대학과 사회의 뿔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때로는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대로 투영되기에도 했고 글과 글과 오욕, 시대(時代)를 통틀어 느낀다면 탄식과 슬픔을 자아내며 나라가름을 다할때도 병정과 이성을 잃어 버렸다. 또 「자유화의 물결」이 소용돌이 치고 폭풍우에 밀려 한날 한날 개천의 한상으로 덮여 지 갈때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또한 실력과 학벌의 경계에서도 본보기가 해야 할 본분을 잊지않으며 했다.

또다시 장안을 기뻐하는 이 시점에서서도 보편적인 지(知)를 창출해야하는 대학의 한 본연의 생각을 깨닫는다. 학문하는 데 있어 자원은 필수적 조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학문하는 데 있어서의 「제한」과 「조건」과 만만찮은 무전제(無前提)의 연구여건을 구해본다.

대학의 고유한 사명에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건전한 의미의 사회참여의 의지를 내보임은 진보하는 역사의 원천으로서의 그 구실을 다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조국과 민족을 진실로 사랑하기에 사람이 전제된 가혹한 비판도 마다할 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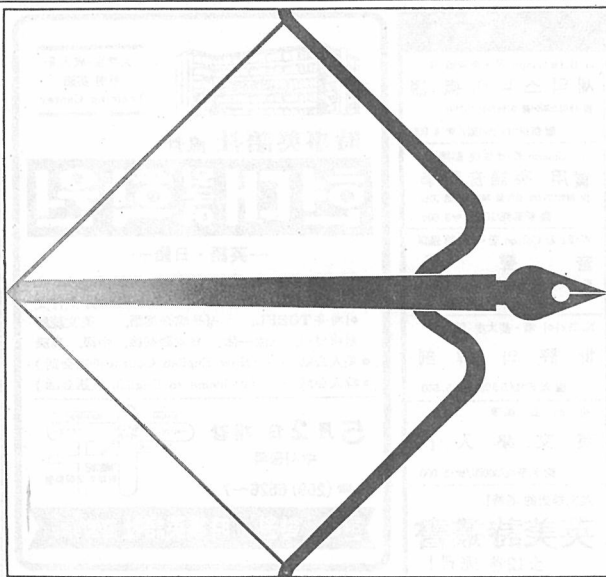
교차하는 명과 암의 외대 역사를 지켜보면
서 번득이는 해안으로 올라가는 실현을 위해
일토 매진할 것을 또 한번 다짐한다. 다시 말
해 시대, 대학살의 증인이고자했던 참간이래
의 본보의 다짐은 오늘에 이르러 더욱 단단
해졌고, 진리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 인식은
또한 변할 수 없는 우리의 각오이다.

창간 28주년을 기념하는 엄숙한 이 시간에 부끄러움은 없었는가 대학신문의 본연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의대학보! 자유·민주, 진리·평화·창조의 선봉으로서 정의를 세우고 진리의 빛을 밝히는 꺼지지 않는 횃불되리라.

외대 학보

외 대학보



낮선 것 앞에 서게하고
먼곳을 찾아 떠나게 하라

섹박한 청년이며,
 청춘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라.
 청춘이 손상되지 않도록
 청춘을 그 본래의 영광 안에서 머물게 하라.
 그 영광 안에서 청춘이 것을 피고 날아오르게 하라.
 섹박한 청년이며,
 세상의 압력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모든 것은 내 안에서 싹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모든 것은 네 스스로
 내게 신사하는 선물이 되어야 한다.
 섹박한 청년이며,
 미래의 모든 성(城)을 쌓아라.
 이미 완결한 것을 사랑하지말고
 아직 완성된 것을 새롭게 낳는 것 앞에 서게 하라.
 청춘은 괴력한 노수(勞手)이며
 그들로 삼아야 하는 데 아니
 으므로 끝없이 번 길을
 달려야 하는 주자(走者)임을 잊지마라.
 섹박한 청년이며,
 하루하루를 즐비하라.
 그리하여 하루하루를 창조의 슬림로
 두껍게 달아오르게 하라.
 수확하며만 '후로' 생각한다' 중에서


대우가족

미래의 청사진은 과거의 연장선상 위에서

사진으로본 문화사



<세계적인 명문 미국 Harvard대학장 데이비드 미아라 주무사에게 명예문학박사학위를 수여하고 후드를 달아주는 장면(1970. 4. 20) 1965년 주한 이태리대사였던 카부리 엘레 바레제에게 명예문학박사학위를 수여한 이후 본보는 국내인 15명, 외국인 23명 등 모두 38명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



<1958년 이문시대의 박이 오르면서 첫 졸업생 133명을 배출한 이래 올해까지 20여명의 동문이 이태리박사를 거쳐나갔다. 세계를무대로 비상하는 비룡기의 한창은 비룡이아 손 지구를 뒀을 것이다. 사진은 67학년도 제10회 학위수여식 (68. 2. 27)>



<65년 선거를 제의하고 도무적선으로 학생들의기구를 구성해왔으나 74년 17대를 끝으로 중학생회가 해체되고75년7월 보도호국단제로 개편되어 간선제로도 바뀌었다. 그후 10. 26이후 잠시 중학생회중학생회가 부활되었다가 1980년 이후 또 다시 학도호국단·세제로 전환되어 거기에 이르고 있다. (사진은전선시절의 선거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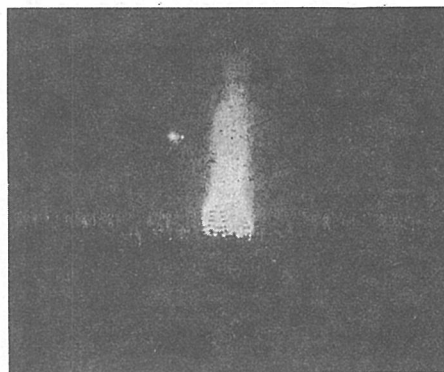


<1963년 일본 연리대학이래 스페인 마드리드대학, U C버클리대학 최근 호주 플린머스대학까지 해외 20개대학과 문화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사진은 본교와 19번교와 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한 일본 쇼코대학의 조인식 광경(83. 3. 15. 본교 중정실)>

◇...내년 84년은 본교 개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격동의 한국...
 ◇...현대사와 명과 암을 같이하며 창립 초창기의 어려움을 무난히...
 ◇...극복하고 이제 세계속의 명문 외대로 굳건히 자리잡았다. 1954...
 ◇...년 종로 YMCA 뒷편 영보빌딩 가교사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이문 캠퍼스'로 박약하고 멀리않은 장래 2000년이면 용인 캠퍼...
 ◇...스에 등우리를 마련하여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쳐게 될 것이...
 ◇...다. 진리, 평화, 창조의 교시아래 미네르바 등산에 모인 흡산...
 ◇...들은 술한 비사(秘史)를 흘리며 오늘의 외대상을 조각하는...
 ◇...데 기초적 토대를 마련했다. 세민제, 모의 UN총회, 모의 올림...
 ◇...피, 원이 연극들의 오늘이 잊게한 비룡기들의 활약상을 다시...
 ◇...돌이켜 보고 이문동지에서 자라나서 조수를 타고 세계로 비상...
 ◇...하기까지의 역경(歷程)의 순간들을 개교 29주년 오늘을 계기...
 ◇...로 한꺼번에 모아왔다. 비약적인 외대 발전의 청사진을 그려...
 ◇...보면서... <편집자주>...



<외대의 특수성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세계민속예술제전. 81년 제7회 공연에서 보여주듯 엄청난 몰방 동원과 화려함으로 호기심많은 장안사람의 커다란 화제가 되었지만 「독창적인 외대문화의 결정체」라는데엔 얼마간의 회의가 일고있다. 사진은 그 시조였던 제1회 세민제모습(71. 4. 23. 진명여고 강당)>



<축제의 밤이 깊어질수록 축제의 불길은 더욱 뜨겁게 하늘을 지향한다. 이 불길에 모인 흡산들의 가슴도 불길만큼 뜨겁게 세계를 향하고 있다. (82년 제7회 이문축제시 캠프파이어 모습)>



<81년 대방의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면서 흥비와 도약의 새나라를 펴기시작했다. 특수성에 보편성을 조화시킬수 있는 종합대학과 그원년을 장식했던 초대 김동선총장의 취임식 모습> (81. 3. 2. 본교 대강당)



<외국어교육의 본산으로서 19개외국어를 포용하고있는 본교의 특수성을 배경으로 전국대학생영어학제대회가 열려, 불어, 독일어 3분야에 걸쳐 지난해2회까지 개최되었다. 사진은외국어학제대회대회출발식이었던 81년의전국대학생영어학제대회대회 모습>



<1956년 제1회 영어영어연극무대 어학실험배와 학과의 융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된 그 맥을 이어온 영어연극. 이제는 거의 모든 학과의 중요한 행사와 하나로 실험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조장기 영어 영어연극의 모습)>



<외대가 아니면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체육행사 모의 올림피, 하사의 파 (파)가 이태는 하나가 되어 혼신으로 경주, 물과 모든 일체가 된다 (사진은 조장기와 82년도의 임장식 모습)>



<1958년 제1회를 시작으로 73년 제10회까지 외대의 두드러진 자방거리중의 하나로 모든 대학인의 관심을 모았던 모의 UN총회, 긴급조치와 학내사정으로 73년 제10개회이래 열리지 못하다가 9년만인 82년11월8일 제11회행사가 열려, 앞으로 계속되게 되었다> 모의 UN총회 토론의 현상, (58. 12. 13. 진명여고 강당)

